

# “동국대의 내일 위해 혼신 다할 터”

## 東大 제36대 이사장 취임 정련 스님... 종하 스님,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동국가족들이 염원하는 안정과 화합,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슴 깊이 새겨, 동국대의 내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제36대 이사장에 취임한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사진)은 7월 2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다짐했다.

스님은 취임사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안정화하고, 조계종단과의 관계를 생산적이고 협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련 스님은 “모든 현안을 충실히 풀어놓고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며 협력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움을 간청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동국대가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

다. 이는 지배구조와 운영체계, 리더십 등이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스님은 “이사회는 ‘이사회적 운영을 전제로 주요경영진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겠다’며 ‘명문사학으로의 재진입을 목표로 학교운영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제개편과 특성화 준비, 자원재분배와 재정운영의 안정화 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련 스님이 취임사를 통해 보인 동국대의 비전은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 △법인의 학교에 대한 재정 기여도 제고 △소통하는 열린 조직 문화 조성 △자율과 분권을 통한 창의적 조직 운영으로 요약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사장 취임식에 총무원장 지원 스님이 참석한 것은 정련 스님의 화합과 개혁의 기초를 뒷받침 하는 부분.

지관 스님은 차사에서 “이사장 스님의 새로운 각오와 구성원들의 협



력으로 동국가족과 2000만 불자가 염원하는 대하이 되기를 바란다”며 “103년 전 불교 선각자들이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동국대를 건립했다면, 지금은 불교와 민족 발전의 새 전기를 위해 제2의 동국대학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동국대 이사장 취임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부림·정무·종하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스님, 교육원장 권한대행 법장 스님, 정호·정여·대오·지홍·덕문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총무부장 원하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스님이 대거참석했다.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허남시 부산시장,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자리했다.

이날 원로의원 종하 스님(서울 관음사)은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수원사 주지)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동국대 총학생회는 취임식을 전후로 “무리한 학제개편과 학생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회장은 취임식에서 정련 스님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며 학생회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2009 연등축제 시상... 한미음선원 등 정진상 부처님오신날불교유원회(위원장 지관)는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9 연등축제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미음선원(주지 혜원),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등 12개 단체가 정진상을, 육천암(주지 정법) 등 7개 단체가 보현상을, 대불련 연회단과 동방불교대학 등 5개 단체가 원력상을 수상했다. 또, 감사패를 받은 가수 겸 작곡가 김현성씨를 비롯해 한미음선원 어린이회 최은희 지도교사 등 14명이 개인 표창을 받았다. 한편, 올해 시상식은 우천 등 악조건 속에서 모두가 수고했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 서불대 '임원취임 승인 취소'

## 교과부 위법사항 시정 촉구... 이사장 지옥 스님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내분규 중인 서울불교대학 원대대학교(이사장 지옥, 이하 서불대)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교과부는 7월 17일 학교법인 보문학원에 감사처분 미이행과 관련한 2차 계고문을 발송하고, 1차 계고(5월 26일)시 미이행된 사항과 민원조사 결과 추가로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2차 계고문에 따르면 보문학원은 8월 3일까지 서불대 황윤식 총장 등 관련 교직원의 해임 징계 철회 △박성연, 성승연 교수의 재계약거부처분 취소 △김경권, 조옥경 교수의 복직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학원정상화를 위

해 총장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것이나 이사장 등이 학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서불대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조항은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사장 지옥 스님은 “교과부가 이사장인·취소건을 갖고 있다 해서 무소불위의 검을 휘두르고 있다”며 “교과부 계고를 따른다면 몇 안되는 종합학교 중 하나인 서불대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스님은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이사장은 업무정지 되고 이사는 4인 뿐이며, 신규 이사 2인은 승인도 미루고 있으면서 정관 개정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지옥 스님은 “학칙을 개정하라

는 교과부 요구는 과하지만, 교수권·학승권 보장 등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밝힌 교과부가 요구한 시정사항을 수용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서불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2차 계고문에서 요구한 시정사항들을 환영한다”면서도 “7월 24일 현재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 황윤식 총장도 복귀만 됐을 뿐 총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은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서불대 학생회(회장 오세준)는 최근 조계종 홍보부(부장 정만)에 “보문학원 이사인 A 스님(중앙종회 부의장)과 B 스님(승인보각사 주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동섭 기자

#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 조계종 나서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와 불교아카데미(원장 박희택)는 8월 19일에서 11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과정'을 마련한다.

강의는 8월 19일 정몽기 불교아카데미 상임연구위원 '민족문화·사상·종교의 위기와 종교차별의 이해' 강연을 시작으로 총 12회로 진행된다. (02)2011-1824 노덕현 기자

# 다문화 가족 등에 '정성' 전해

## 조계종·아름다운동행 1억1600만원 보시

경제 양극화로 고통 받는 저소득 계층에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전달됐다.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다문화 가족, 난치병 환우 가족,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가족 등 200여 대



자비나눔 지원금을 전달하는 지관 스님

중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의료비 지원 및 1차 긴급생계비 1억16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는 환아 및 다문화 가족 등을 보살피고 있는 조계사 김경숙 신도(500만원)와 영진사 영진원 진성 스님(200만원)을 포함한 111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억1600만원이 전달됐다. 세부사항으로는 긴급생계비 6800만원, 난치병 및 다문화 가정 환우 치료비 4800만원이다.

이번 지원된 기금을 비롯해 지난 5월 1차 긴급 의료비 7200만원 지원, 자비 의할 지원 8000만원 등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 그동안 지원한 금액은 총 2억6800만원에 달한다. 직접 대상으로 참가한 36명에게 단상에서 지원금을 일일이 전달한 지관 스님은 “전달된 이 돈은 적지만 불자들이 1배의 참회로 100원 씩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넉넉히 보내준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이타정신으로 모아진 것이므로 행복하게 써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실직가정등기 자비나눔사업' 결과 7억 2317만원(약정 포함) 기금이 답도했음을 밝혔다. 글=노덕현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社**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최: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사)지구촌공생회
- 기간: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금액: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의: 지구촌공생회 02)455-953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 4대강 정비사업 '멈춰'

## 불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조계사서 농성

불교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는 7월 24일 조계사 입주문 앞에서 '4대강 운하개발사업 저지 불교계 천막농성 입재식'을 개최했다. 입재식에는 조계종 환경위원장 주경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장 현각 스님,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지관 스님, 광명불교환경연대 대표 승묵 스님, 실천승가회 환경위원장 정후 스님 등 불교단체 대표와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에서 현각 스님은 “우리의

욕심이 못생명을 죽이고 있다. 불자들은 수행의 양심에 비해 저지저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교계 각 단체는 10월 중순까지 매일 3000배 릴레이 기도장전 및 인사동 홍보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생명의 강을 위한 작은 음악회'와 사진전, 세미나 등도 열 계획이다. (02)720-1654 노덕현 기자

前 세계 '미세스진', 현지 방필석 촬영

##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오네★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닷물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연**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 주역 개인지도

####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 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 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9회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